

문 : 요즈음 거리를 걷다보면 유난히 공기가 탁하고 숨쉬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공기오염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공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답 : 일반적으로 공해라 함은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대기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소음, 진동 약취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구조의 다원화, 공업화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필연적으로 심각한 공해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업화는 국민생활수준을 급격히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었지만 공해로 인한 국민 보건상의 위하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완수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공업화를 이룩하였다.

1953년 일본국의 水俣病이라는 기병이 발생하여世間을 놀라게 했다. 매년 평균 50만kg 이상의 어획량이었던 어항이 폐항으로 되고 90명의 발병자중 35명이 사망하여 사망율은 40%에 이르렀으며 다행히 사망을 면한 사람들도 신경계 장애를 일으켜 폐인이나 다름없이 되었다.

이러한 병의 원인을 조사한 바 水俣市 일본 질소공장에서 사용된 수은이 공장폐수로 水俣만에 방류되어 어족이 폐사하고 그 어폐류를 먹고 사람들이 죽어간 것이다.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의 영국 런던에서의 SMOG는 노인층, 소아, 병약자 약 400명을 사망케 하였으며 다음해 2월 중순까지 무려 8,000여명이나 더 사망자를 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짙은 안개와 대기오염물질의 응축에서 기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는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었다.

우리나라 동해안 공업지대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독수대를 형성하여 폐류양식장이 엉망이 되고 폐수로 인한 기형어족이 발견되고 매연으로 인한 도시민의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되고 있다는 공해의 현실을 우리는 마스크를 통해 매일같이 접하고 있다.

공업화로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공업화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오염된 생활환경, 병든 신체를 가져온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우리나라 산업이 서비스 업종으로 전환되고 있다던가, 첨단산업과 신소

## 시력의 발달과 굴절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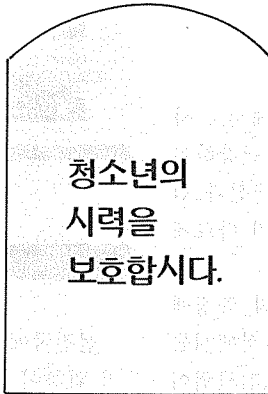
갓난 아기의 시력은 희미한 불빛을 느낄 정도며 세상에 태어나 눈을 뜨게 되고, 발육되어 정상시력으로 성장한다.

눈의 굴절 이상에는 근시, 원시, 난시 등이 포함된다. 눈이 조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계 멀리에서 눈에 들어온 광선이 눈속 망막(특히 중심와)에 정확한 초점을 맺게 되면 정상이지만, 안구가 커져 초점이 망막 앞에서 맺히면 근시, 안구의 축이 정시보다 작아 초점이 망막 뒤에 맺히면 원시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생아의 80%는 원시로 태어난다는 사실이며, 성장하면서 원시는 감퇴되거나 국민학교 시절부터 근시가 나타나 나이와 더불어 진행되며 25세가 지나

면 근시의 진행은 정지되어 평생을 가게 된다.

대체로 우리나라 근시는 불량한 조명하의 환경 요소와 독서 태도 등에 많이 관계된다.



청소년의  
시력을  
보호합시다.

시력장애. 요인과 그 증상

우리 주위에는 눈을 혹사하는 시각물이 많다. TV화면, 컴퓨터, 전자오락기 등이 그것들이며 사무용품의 전산화 보급과 더불어 요즘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면서 컴퓨터눈병이라

칭하는 브이디티(VDT) 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에 대한 새로운 직업병의 인정여부가 나라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자각증상은 시력저하, 눈의피로, 눈의 조직력 저하, 아물거리는 희미한 시력 및 색깔의 이상현상 등을 호소하며 두통, 팔목·어깨의 통증, 식욕부진, 위통, 변비, 생리불순, 열감, 냉감, 흉부압박감, 신경증, 초조감 등이 나타난다.

한편 기질적 변화로는 누액감소로 인한 표층 각막염, 고령자에서 안압상승유발, 전리방사선에 의한 백내장, 동공의 이상, 조절폭주의 이상, 근시의 진행 악화를 들며 이의 직업병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된다.

대체로 화면에서 발생하는 적외선과 강한 빛이 심신의 무리를 수반하고 눈의 자극도 유도한다.

재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은 새로운 직업병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새로운 물질에 의한 직업성 질환이 증가할 여지를 남겨준다. 그러므

로 공업화에 따른 국민건강 관리에 많은 연구가 요망된다.

〈건협 서울지부부속의원장 이증범박사〉